

문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새로운 이야기 그려내요”

붓다아트페스티벌 참여한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제 별명이 파주 스님이예요. 팬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고 있죠. 머리를 밀고 다닌지 5~6년이 됐고 불교 관련 소재로 작품을 하다보니 그렇게 이미지화된 거 같아요. 일종의 캐릭터로 자리 잡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34)가 3월 6일~9일 서울무역전시장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붓다아트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그의 대표작 <신과 함께>와 현재 네이버에 연재중인 <제비원 이야기> 등을 소개하는 부스를 마련해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붓다아트페스티벌 '만화기획전'에 참여했다.

<신과 함께>서 불교 저승관 그려내 두터운 팬층 확보하며 큰 인기 모아

하며 저승타임즈라는 신문이 발행되는 흥미롭고도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다.

주 작가가 불교적 세계관에 익숙하게 된 데에는 불교 대중화로 군부목을 한 것도 한 몫을 한다. “제비뽑기를 통해 군중병으로 복무 하게 됐어요. 매주 법회에 참석하다보니 <만아심경>은 다 의외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심할 때마다 사찰 관련 서적들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죠. 그때의 경험이 현재 제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과 함께>는 현재, 김태용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내년 추석 개봉을 목표로 영화 제작중에 있다.

주 작가는 최근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제비원 이야기>를 네이버에 연재중에 있다. 경북 안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제비원 전설을 바탕으로 연이 처녀 이야기, 제비원 미륵불을 조각한 형제 이야기, 제비원과 범포사의 절 짓기 사할, 제비가 된 목수 이야기 등의 민담을 웹툰으로 풀어내고 있다.

“전혀 다른 4개의 이야기를 두형제를 주인공으로 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불상 조각을 하는 두 형제를 통해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등감, 애증 등의 문제를 보편적 인간의 이야기로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제비원 이야기>는 4월 책으로 출간돼 독자들을 찾아간다.

주호민 작가는 당분간 <제비원 이야기> 연재 외에는 작품활동을 설 예정이다. “지난 3년 동안 작품에 매진하느라 쉽 없이 달려 왔어요. 물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앞으로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쓸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래도록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주호민 작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특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그려가는 그가 앞으로 독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즐거움을 선사할지 재충전 이후 그의 이야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박람회 개막식 당일 전시작 라운딩을 하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주호민 작가의 부스를 둘러보고 <신과 함께>를 읽어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쳐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불교박람회서 주호민 작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네이버에 연재중인 '제비원 이야기'



<신과 함께>표지 이미지

푸른 산 반쪽은 비, 반쪽은 저녁종소리

불국을 향한 민중의 바람

경주 불국사(佛國寺)는 근래까지 만해도 학생들 수학여행의 1번지였고 신혼여행 효도관광의 필수코스로 기억되는 곳이다. 해외여행이 대중화된 요즘에도 불국사는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관광코스로 외국여행객들에게도 매우 기억의 남는 여행지로 각인되고 있다. 고도 경주라는 지리적 특성과 주변의 풍부한 역사유적이 불국사를 수학여행 뿐 아니라 한국관광의 1번지로 손색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불국사가 신라 경덕왕 10년(751) 김대성(金大城)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절이 유난히 많았던 신라의 도읍 경주에서 대표적인 사찰로 위용을 떨쳐 온 불국사는 순한 병화(兵火)를 입으면서 오늘날까지 그 맥을 지켜오고 있다. 불국사가 종교적 측면에서의 가치와 더불어 명승으로서의 이름을 잃지 않은 것은 ‘불국’을 향한 민중의 바람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신중동국여지승람> 경상도 경주부 조에서는 불국사를 “토함산(吐含山) 속에 있다. 석교(石橋)가 둘이 있는데 청운교(靑雲橋)·백운교(白雲橋)라 한다. 제작이 지극히 정교하다”고 소개하고 창건설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신라 사람 김대성(金大城)이 창건한 것이다. 일찍이 모랑리(牟梁里)의 가난한 여자가 아들이 있어 이름이 대성(大城)이었는데 일찍 죽었다. 그가 죽던 날 밤에 나라의 재상 김문량(金文亮)의 집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공중에서 외치기를, “모랑리의 대성이 이제 너의 집에 태어난다” 하더니 문량의 처가 과연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오른손을 7일 동안이나 꼭 쥐고 있었는데, 금으로 새긴 대쪽이 그 손에 있어 ‘대성(大城)’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 있었으므로 그대로 이름 지었다. 장성하자 그 가난한 여자를 자기의 집에 데려다 두고 어머니와 같이 봉양하였으며, 또 이 절을 창건하여 승려 표음(表訓)을 청하여 거주하며 두 어머니의 장수(長壽)를 축원하였다 한다.

그리고 <신중동국여지승람>의 발문을 쓴 당시의 대학자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오연율시 한수를 ‘신중’으로 추가하여 소개하고 있다.

위방조제경(爲訪招提境) 송간자취중(松間紫翠重) 청산반변우(靑山半邊雨) 락일상방중(落日上方鍾) 여여거승연(語語居僧儂) 배수고의농(徘徊隨古意濃) 퇴연일담상(頽然一榻上)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① 김종직과 불국사



불국사 전경. 김종직의 시를 통해 그가 산사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상대빈성송(相對* 峯 磴) 그대 위에 초제(淸) 경계 찾아드나니 숲 사이에 붉고 푸른 빛 겹겹하여라. 푸른 산 반쪽 하여 비가 뿌리고, 스님과 나누는 이야기 부드러운데 술잔은 옛 정 따라 무르녹나니 술에 취해 한 자리에 주저앉아서 서로 마주보니 귀밀달이 희끔희끔하네. -김종직 '불국사여세번화' 정필재집 제3권

이 ‘불국사여세번화(佛國寺與世蕃話)’는 <정필재집> 말고도 <동문선> 제6권과 <해동역사> 제 48권 등에 수록되어 있다. 정필재(正弼齋) 김종직이 조선초 성리학 영남학파의 종조로 추앙되는 거유(巨儒)이기도 하지만 그의 시가 워낙 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시는 오래 사귀어 온 스님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초제’는 불교용어로 사방에서 모여든 승려들이 머무는 객사라는 의미와 관부(官府)에서 사액(賜額)한 절이란 의미를 갖는다. 이 두 개념을 합하면 이름 있는 큰 절로 국가기관이 인정하여 많은 스님들이 모여드는 사찰이라는 의미 풀릴 것이다.

강적 효과에 이어 해가지는 시간 절에서 들리는 종소리의 청각효과가 겹쳐지면서 화자는 그림 같은 풍경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정민 교수(한양대)는 <한시 미학 산책>에서 이 두 구절을 ‘푸른 산 반쪽에선 비가 내리고 / 해지는 상양에선 종이 울린다’로 번역하고 “시인은 청산의 반쪽에 비가 온다고 말하며 다른 한 쪽에는 비가 내리지 않음을 보였다. 이편에는 비가 온 데 저편에서는 해가 진다. 떨어지는 해가 못내 아쉬운 듯 절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푸른 산과 붉은 해, 서늘한 비와 맑은 종소리. 경물과 마주하고 선 시인의 맑고 쾌락한 정신이 이러한 이미지들의 결합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풀이했다.

그러한 풍경 속에서 화자는 오래 사귀어 온 승려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 대목에서는 이야기의 주제나 목소리가 모두 부드러워 정감이 더욱 깊어지고 거듭되는 술잔에 흥마저 깊어지는 화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시의 정서는 아름다운 풍경 속의 고찰과 정 깊은 이야기 등으로 한층 고조되다가 결국에서 ‘서로 마주보니 귀밀달이 희끔희끔하네’라고 하였다. 인생의 판조적 경지 내지는 깊은 연륜의 선비가 보여줄 수 있는 여유가 느껴진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기마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이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전라도 : 011-248-6298
충청도 : 010-8674-23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산업 지붕 공사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님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3종 65권의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참조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031-534-3373